

'아주 특별한 순간 - 그림으로 만나다'

국립전주박물관,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기념 특별전 10월 29일까지 개최

국립전주박물관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행사를 기념해 특별전 '아주 특별한 순간 - 그림으로 만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특별한 만남, 자연, 행사'라는 주제로 3부로 나눠 구성, 채용신의 '평생도' 등 31건 83점이 출품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1부에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을 주제로 자유롭고 사적인 모임을 그린 그림들을 선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아집(雅集), 아회(雅會)라는 이름으로 취미를 공유하거나 소소한 일상을 함께 즐겼던 문화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 중인들이 인왕산 자락의 계곡에서 시사(詩社)를 연 일이나 관료들이 남산에서 계회(契會)를 가진 일들은 많은 그림과 기록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서지수는 붓이나 책 등 평소에 애호했던 물건 등을 빗대어 벗으로 칭하고 그림 속에서 그들과 만나는 상상의 순간을 그렸다. 어느 날 경치 좋은 곳에서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이인문은 누각아집도를 그리고 누가 모였는지 모아서 무엇을 했는지 글과 함께 남겼다.

이어 2부에는 나에게 특별한 자연으로 기억되는 곳을 그린 그림들을 선보인다. 경치를 그린 그림 속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연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강세황은 아들이 회양부사로 부임하자, 아들을 따라 가는 길에 금강산 가는 길목에 있던 피금정을 방문해 그림으로 남겼다. 이 멋진 풍경 속에는 강세황과 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 이인상은 15년 전 지인과 함께 구경했던 금강산 구룡폭을 떠



이인문 <심우도> 조선 1783년

올리며 기억을 더듬어 다시 그렸다. 경치를 기록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함께 했던 순간은 그림을 통해 영원히 남았다. 끝으로 3부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기록한 궁

중기록화와, 주문해 그려 받은 근대기 초상화들이 전시된다. 지금도 불잔치, 결혼식, 시상식, 퇴임식 등에서 중요한 순서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념사진 촬영이다. 사진기가 없던 시절, 그림은 국가적 경사와 집안의 중요한 기념일을 담아 후세에 전하는 역할을 했다.

왕세자가 탄생해 스승과 상견례하고 성균관에 입학하는 등 왕실에서 진행된 왕세자의 성장 과정도 그림으로 남았다.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냐 되고 싶어 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평안감사 부임을 축하하며, 평양 대동강에 배를 띄우고 부벼부와 영광정에서 잔치를 열었다. '평안감사행연도'는 2,50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시끌벅적한 광경을 마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만 같다.

특히 전시의 마무리는 채용신의 '평생도'다. 70세가 넘는 채용신의 머릿속에 눈부시게 찬란했던 평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한양으로 올라가 태조 여진 제작에 참여했던 경험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채용신은 자신의 특별한 순간들을 영원히 남기고 자신들에게 보이고자 10곡의 병풍에 담았다고 한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2021년 4월 28일 고교 이 건희 회장 유족이 그의 수집품 중 문화유산 2만 1,683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는데, 그 가운데 '평생도', '문관 초상', '수하한담도' 등 12건 31점을 선보인다. 또한, 평생도를 인터넷 영상으로 제작해 화가 자신의 소셜 같은 인생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지역 학생·교원 미술작품 전시회

교육부 청사 내 '예술공감터 이음' 서 11월까지 진행

전북지역 학생과 교원들의 미술작품이 교육부 청사에 전시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1월까지 교육부 청사 내 '예술공감터 이음'에서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전북교육청이 주최한 '제17회 푸른꿈 맑은생각 표현전'에서 수상한 학생작품 18점과, 미술교원 작품 15점 등 총 33작품을 선보인다.

'예술공감터 이음'은 학생·교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소통·공감의 장이다. 학생은 다양한 작품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표현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는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은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미술교원들은 창작활동을 예술 전문성과 교육적 가치를 교육 현장에 담아낼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바쁜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예술공감터 이음' 전시회에 참여한 학생과 미술교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내 학생들과 미술교원들의 창의적인 예술 표현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7월 3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 발전 '맞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7월 3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주요 보직자들과 김도영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콘텐츠와 학술정보 등 자원을 교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학생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운영 등에도 긴밀히 협력해 전통문화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

를 양성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한국전통문화전당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전통문화 인재를 발굴·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원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국립 전북대학교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전통문화 인재를 양성하고 또 이들이 지역의 커다란 자산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율림 국립익산박물관장 취임

국립익산박물관은 제3대 관장으로 김율림 전(前) 국립춘천박물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율림 신임 관장은 서울대 서양화과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를 시작으로 유물관리부·전시과·미술부 학예연구



관을 거쳐,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춘천박물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최홍선 전(前)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유물관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은성 기자

'파이팅 콘서트 시즌IV' 열린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효자동 그루브·무직회사 2팀 공연

온라인콘텐츠 사업인 파이팅 콘서트'가 네 번째 시즌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찾아온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따르면 '파이팅 콘서트'는 전당에서 자체 제작한 대표적인 온라인 기획공연으로, 매년 완성도 높은 영상미와 무대제작으로



왼쪽부터 효자동 그루브, 무직회사 포스터



상 또한 무료로 공개해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온라인 콘텐츠로 자리매김 한 콘서트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지역예술단체가 참여해 공연료와 무대영상 제작 지원을 받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제작 영

향상에 이바지했다.

이번 '파이팅 콘서트 시즌IV'는 온라인으로만 만났던 공연을 무대 위에 객석을 설치해 눈앞에서 뮤지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

첫 번째 공연팀 '효자동 그루브'는 '라틴'이라는 특별한 장르에 그룹만의 색깔을 넣어 대중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표현하는 5인조 밴드다. 두 번째 공연팀 '무직회사'는 클래식적 바나나 해임치고 살아가며 느끼는 수많은 감정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클래식 단체다.

한편 '파이팅 콘서트 시즌IV' 첫번째 무대 '효자동 그루브'의 공연은 4일, 그리고 두 번째 무대 '무직회사'는 10일 각각 19시 연지홀에서 전당 유튜브 채널 'SorArts TV'를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